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1. 10. 18.(월) / 총 6매(본문4, 참고2)	
담당 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동현, 사무관 성경립, 주무관 강선화 ·☎ (044) 201-3819, 3813, 4783	
보 도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 첨단교통기술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 조성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19(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 지난 '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신교통수단의 도입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 통신방식은 LTE-V2X 방식 실증, 주요 고속도로에 Dual Mode(WAVE+LTE-V2X) 시범사업 후 단일표준을 정해 전국 구축 추진('24~)

** 자율협력주행 통신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등록, 보안)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만 V2X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체계

-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2.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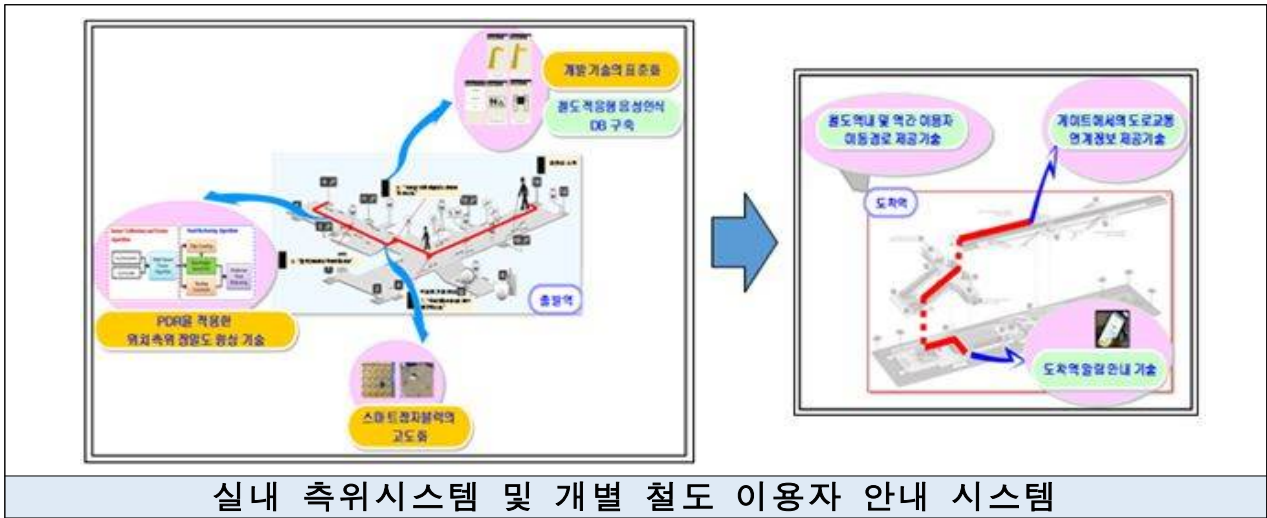
-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3.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 하도록 지원한다.
-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4. 국내 지능형교통체계의 해외진출 지원

- 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 요약

-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10년 단위 계획 수립
- (요약)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4개 목표, 5개 분야별로 추진

비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	
목표	안전	사고예방과 처리의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통체계
	효율	지역별, 계층별 수요대응형 효율적인 교통체계
	연계혁신	혁신기술을 활용한 단절 없는 연계혁신의 교통체계
	지속가능	포용적이며 친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5개 교통분야의 4대 목표별 추진 전략		
자동차·도로	안전	실시간 예방·대응 가능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효율	데이터·AI 융합 지능형교통관리체계 구현
	연계혁신	스스로 상황을 진단, 제어하는 디지털 인프라 혁신
	지속가능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편리한 포용적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철도	안전	선제적 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효율	C-ITS 기반 철도 이용자 서비스 제공
	연계혁신	수요대응형 철도운영체계 구축
	지속가능	철도 ITS 분야 해외경쟁력 강화
항공	안전	스마트 항공 안전 구축
	효율	데이터 공유 기반의 운영 효율화
	연계혁신	항공교통의 혁신과 연계
	지속가능	-
해상	안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체계 확립
	효율	광역·통합 선박교통관제 체계 구축 및 선박교통관제시스템 고도화
	연계혁신	스마트 해운·물류 체계 구축
	지속가능	-
수단간 연계	안전	수단간 연계 안전관리체계 구축
	효율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연계혁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단간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인프라 공유를 통한 친환경 ITS 구축

참고 2**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 기본계획 총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성경림 사무관	☎044-201-3813
• 자동차·도로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장유진 사무관	☎044-201-3928
• 철도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안전과	이건준 사무관	☎044-201-4620
• 항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이호준 서기관	☎044-201-4181
• 해상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양영철 주무관	☎044-200-6234